

흑한의 날씨 ... 뜨거운 유세

이재명 “청년의 고통 줄이겠다” 서울서 2030세대 공약
윤석열 “지역주의 깨겠다”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연설
유세차 사망 사고 ... 선거운동 중단 안철수 행보에 주목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팽팽한 양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은 16일 갑작스런 한파를 헤치며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관련기사 3·4면>
이 후보는 서울에서 ‘위기극복’, 호남과 충청에서 윤 후보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웠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남에서 양강 후보들을 비판하며 ‘개혁 바람’ 일으키기에 온 힘을 쏟았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발생한 ‘유세차 사망사고’에 따라 유세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정치권에선 ‘유세차 사망사고’가 안철수 후보의 선거 운동에 차질을 물론, 후보단일화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 지역을 순회하며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직장과 상권이 밀집한 강남역과 잠실사내역 일대에서 점심·퇴근 시간대 유세를 펼치며 이 후보의 대선 캠페인도 2030세대 집중 공략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대학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점도 부각, 중도확장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취업·창업·주거·결혼·육아 등에서 청년의 고단함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90%’ 공약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문제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 이후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이 완만한 상승 흐름을 탔다고 보고, 중도확장을 통해 현재의 초박빙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민주당 호남 독점 폐해’를 주장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날 오전 송정매일시장에 마련된 유세차량에 오른 윤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5·18민주화운동을 한껏 치켜세운 뒤 “공직에 근무하며 전국을 돌아다녔다. 광주에서 지난 2003년부터 2년 간 근무했다. 저에게는 지역주의 자체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주의를 깨고 국민 화합을 이루고 대한민국 번영과 광주의 발전을 기필코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설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광주가 지역 내 총생산 전국 꼴등이다”, “호남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 “조국세수 (민주당 정부) 호남 발전을 위해 썼느냐”며 민주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윤 후보는 또한 ‘문제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과 관련해서는 “부정부패는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런 보복 같은 것 생각한 적도 없고 (민주당은) 엉터리 프레임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은 민생 확립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각을 막론하고 부패 연루되면 단호하게 처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유세차 사망사고’에 따라 유세를 중단하고 이날 새벽까지 사망자 2명의 빈소가 있는 전남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장례식장을 잇달아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안 후보는 자발적으로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아 뛰던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데 대해 비통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며칠간 유세를 전면 중단하고 사고 원인 규명 등 사태 수습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 후보의 유세 재개는 빨라야 이번 주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대선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호남 지역을 훑으며 진보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후보를 거세게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심 후보는 이날 영암군의 삼호중공업 공장 앞에서 출근길 유세를 했다.
특히,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실용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것”이라고 이 후보를 강력 비판했다. 심 후보는 오후에는 여수로 이동, 여수 폭발사고 산업단지 희생자 빈소를 조문하고 노동자들의 근무 실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해 논의하면서 노동자 권리 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유세차 사망사고’로 안 후보의 선거 운동에 제동이 걸린 만큼,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후보단일화가 급류를 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후보 선대위에서는 이날 연 총괄선대위원장과 오영훈 후보 비서실장이 조문해 나섰고 윤 후보는 이날 원주 일정을 마친 뒤, 빈소가 차려진 전남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을 직접 찾기로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눈보라 속 코로나 검사 행렬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9만여명에 이른 16일 오후 광주시청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 PCR 검사소에 눈보라 속에서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유초중고생 692만명 자가진단키트 지원

교육부, 새 학기 학교방역 방안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유·초·중·고 학생은 무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주2회 자가진단검사를 하게 된다. 자가진단검사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에 일각에서는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1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 학기 학교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전국 692만명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새 학기부터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우선 2월 넷째주에는 유·초등학생에게만 제공한다. 교직원에는 예산 부족으로 주 1회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매주 금요일 키트를 받고 가정에서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신속항원검사를 한다. 교육부는 기존 자가진단 앱을 개편해 신속항원검사 여부를 입력하게 된다.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면 다음 날 등교하고, 양성이면 인근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가칭)을 구성·운영한다. 전국 187개 팀, 716명 규모다.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을 전국 총 7만명 규모로 운영하고,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기존 배치 1만1459명 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1681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3월 11일까지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선제검사를 권고 대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학교에서 강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대로 교육부가 선제검사를 의무가 아닌 권고 대상으로 정해 검사 취지가 무색되고 학교 방역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원단체들 역시 이번 조치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코로나 확진 9만명 넘어

정부, 거리두기 조정 내일 결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9만명을 넘었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고령층 3차 접종, 먹는 치료제 도입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중증 환자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병상을 미리 확보해두고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한 덕분에 의료대응에도 아직 별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모아 금요일(18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검사 키트 품귀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2월, 3월 검사키트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면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검사키트를 대량으로 미리 사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영하 10도 출근길 빙판길 ... 내일 낮부터 풀려

광주와 전남지역 날씨가 오는 18일 낮부터 평년 수준으로 오르는 등 회복세를 보이다 일요일 20일부터 다시 추위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18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춥다가 18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최고기온 5~10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전망했다.
17일 일 최저기온은 영하 9~영하 3도, 최고기온은 0도 안팎을 기록하겠으며 18일 일 최저기온은 최대 영하 1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등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8일 낮부터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17일 새벽까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낮아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이 많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수완 전시장 & 서비스센터 2022년 3월 Grand Open!

■ 딜러십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망대로 1041(학정동)
MB 민중충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프론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대동로 603(동명동) 20층(충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광주 제2 딜러십(오른 역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림동)